

# 중등 국어과 희곡교육에서 인터넷 활용

김재석\* · 옹필레\*\*

<차례>

1. 서론
2. 희곡의 교수-학습 방법 검토
3. '인터넷 활용 교육'(WBI)을 위한 기반 검토
  - 3.1. 학습자들의 기반 여건
  - 3.2. 희곡 관련 웹 사이트(web site) 현황
4. '인터넷 활용 교육'을 위한 홈페이지 모형
5. 인터넷을 활용한 희곡 수업 전략
  - 5.1. 본시 수업
  - 5.2. 개별 학습
6. 결론

## 1. 서론

교육과 인터넷을 연계시켜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인터넷 활용 교육'(Web Based Instruction)<sup>1)</sup>은 정보화

\* 경북대학교 교수 / \*\* 대구남산여자고등학교 교사(문학박사)

- 1) Web Based Instruction은 '웹 기반 학습' 혹은 '웹 기반 수업'으로 번역된다. 그러한 번역어는 교육에서 활용되는 웹이 지니고 있는 속성과 기능까지 전달하지 못하고 있어서, 문자(text) 위주의 웹 문서를 이용하는 수업 정도로 받아

시대에 적절한 수업방식으로 교육 전문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에 관한 구체적 사례들이 각 교과영역에서 속속 보고되고 있다.<sup>2)</sup>

백영균은 교육에서 인터넷을 활용할 때 얻어지는 효과를 다섯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첫째, 인성발달을 위한 토론학습 자료와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둘째,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킨다. 셋째, 교과서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넷째, 개인의 능력과 흥미에 적합한 보충·심화학습 자료를 제공한다. 다섯째, 개별화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sup>3)</sup> 이채현은 ‘인터넷 활용 교육’(WBI)에 입각한 교수설계는 전통적인 교육방법과 상보적 관계를 이루면서, 학습동기 유발 등 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다고 했다.<sup>4)</sup> 학습자의 창의성을 존중하면서,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능동성을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인터넷은 교육매체로써 상당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 하겠다.

이번 연구의 목적도 희곡에 있어서 ‘인터넷 활용 교육’(WBI)의 가능성

들여지기가 쉽다.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속성과 기능을 증시하여 ‘인터넷 활용 교육’이라 부르기로 한다.

- 2) 김용익, 「인터넷을 통한 Web-Based Instruction(WBI)의 교육적 효용성과 수업전략: 실과교육을 중심으로」, 『대한공업교육학회지』 제23권, 1998.
- 김의숙,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영어교육: 인터넷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김혜진, 「인터넷 활용 교육에서의 학습자 평가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8.
- 김희영, 「중등학교에서의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 교육 모델」,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8.
- 송기상, 「인터넷의 웹을 이용하는 교육에서의 교사의 역할」, 『한국교원대교수논총』 제12호, 1996.
- 이채연, 「하이퍼미디어를 이용한 국어과 수업전략-구비문학교육을 중심으로」, 『어문학』 제60집, 어문학회, 1996.
- 3) 백영균, 『인터넷과 교육』, 양서원, 1997. 205면.
- 4) 이채현, 「WBI를 이용한 국어교과 개별화 수업설계와 활성화 방안」, 『국어교육』, 한국 국어교육 연구회, 1998. 183면.

을 모색하는 데 있다. 즉 중등 국어교육에서 다소 소홀했던 희곡의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희곡 지도에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안과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그 동안 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희곡교육은 소설교육과 차별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sup>5)</sup> 그 사실은 극적 갈래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는 교수-학습 방법이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희곡은 공연을 전제하는 갈래 특성상 연극에 대한 학습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연극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경험 부족과 수업 시수의 제약 때문에 서사적 줄거리를 학습하는 정도에 머물고 마는 것으로 보인다.

희곡 지도에 있어서 인터넷을 활용하게 되면, 교사는 제한된 수업 시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며, 학습자는 수업에 대해 집중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특히 인터넷의 WWW(World Wide Web)은 일반 텍스트 문서뿐만 아니라, 그림·음성·음향·동영상 등을 하나의 문서 형태로 통합하여 제공하므로, 공연예술인 연극의 다양한 측면을 학습하는데 아주 유용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학습자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웹 브라우저(Web Browser)인 넷스케이프(Netscape)이나 익스플로러(MS Explore)를 사용하여 접근이 가능하므로 특별한 추가 비용이나, 보충 교육이 거의 필요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희곡과 연극에 대한 다양한 학습자료들을 접하도록 하는 시도는, 이른바 ‘영상세대’라 일컬어지는 학습자 집단의 취향에 부합하는 교수-학습 방법으로써도 가치를 가진다 하겠다.

5) 김재석이 1995년에 대학생 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을 때, “소설이나 시 교육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라는 응답이 62%를 차지했다(『희곡교육에서 촌극 활용에 대한 실증적 연구』, 『안동어문학』 제1집, 1996. 108면). 이번 연구에서도 동일 내용을 조사하였는데, 중학교의 경우 대상 학생의 51.7%(178명 중 92명), 고등학교의 경우 대상 학생의 72.8%(158명 중 115명)가 차이가 없었다고 응답했다. 일부 교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희곡의 교수-학습 방법에는 5년전에 비해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희곡교육에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번 논문에서는 논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희곡지도에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확인하기 위한 예비적 검토를 먼저 하기로 한다. ‘인터넷 활용 교육’(WBI)의 기반여건에 대한 조사 없이는 논의 자체가 당위적 결과만 되풀이하기 쉽기 때문이다. 인터넷이 희곡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과 학습자집단이 지니고 있는 인터넷 활용 능력을 알기 위하여, 중·고 각 4개교씩 택하여 한 학급을 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활용하고자 한다.<sup>6)</sup> 이러한 분석작업은 이번 논문이 교육현장과 좀더 밀착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어서 그 동안 실시되어 온 희곡의 교수-학습 방법을 검토하여 장단점을 파악한 후, 인터넷 활용이 지니는 장단점과 비교해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을 희곡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교수설계(Instruction Design)를 제시한 후,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이강백의 <들판에서>를 대상으로 하여 적용 사례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적용 사례에서도 현행 교육환경 내에서 ‘인터넷 활용 교육’이 쉽게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인터넷 활용 교육’(WBI)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인자는 교사의 컴퓨터 활용 능력이다. 교육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컴퓨터의 보급이 엄청나

6) 이번 연구를 위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 4개 학교에서 한 학급씩 선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중학교의 경우 대구지역 2학급, 인근 중소 도시에서 두 학급을 택하였다. 고등학교는 대구지역 3학급, 인근 중소 도시에서 1학급을 선택하였으며, 대구지역에서 1학급은 비인문계 고등학교로 하여 학습자 집단의 평균적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인원 중에서 명확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중학교는 172명이며 고등학교는 180명이다. 남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나,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이번 논문의 목적과 관련이 없으므로 설문 조사에서 고려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아울러 설문에 참여한 학교의 이름은 밝히지 않기로 하며, 필요한 경우 ‘A학교’ ‘B학교’식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설문에 참여해준 모든 응답자에게 감사드린다.

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교사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은 그만큼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 같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교사의 컴퓨터 활용능력이 일정 수준에 있다는 가정하에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인터넷 활용 교육'(WBI)과 교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논문에서 다룰 예정이다.

## 2. 희곡의 교수-학습 방법 검토

중등학교에서 희곡교육에서 택하고 있는 방법은 대체로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입체낭독 혹은 라디오 드라마로 만들기 둘째, 해당 작품을 실제 공연해보기 셋째, 학생들이 작품을 창작하여 공연해보기이다.<sup>7)</sup> 시와 소설의 교수-학습 방법과 차별화하려는 전략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했던 방법이 첫 번째였다.<sup>8)</sup>

입체낭독 혹은 라디오 드라마 만들기는 학습자에게 역할을 나누어 있게 하는 방법이다. 수행평가에 활용하기 위하여 모둠 별로 집에서 녹음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등장인물에 따라 배역을 나누어 읽어봄으로써 희곡의 내용을 좀더 강한 현실감 속에서 느낄 수 있게 되며, 무엇보다도 복잡한 준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제한된 수업 시수를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점이 된다. 그렇지만 입체낭독과 라디오 드라마를 활용한 희곡 교수-학습 방법은 무대 위에서 움직인다는 연극의 기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결정적 한계가 있다는 사실

7) 전국국어교사모임, 『함께 하는 국어수업 1-1』, 전국국어교사모임, 193면.

8) 연극작품이 녹화된 영상자료를 보여주는 수업도 최근 늘어나고 있다. EBS에서 방송된 작품을 활용하기도 하고, 「한국교사연극협회-연극사랑」에서 제작한 영상자료<살아 있는 이중생각하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녹화된 작품을 보여줄 경우에 교사가 희곡의 무대화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 가며 지도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대본의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의 재미없는 체험으로 끝나기 쉽다.

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대사 위주로 낭독되는 특성상 대사 외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극중 행동들을 빠뜨리게 되므로, 대사로 드러나는 내용 중심으로 희곡을 이해하게 하는 잘못을 범하기 쉽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수-학습방법을 택하는 경우, 입체낭독 혹은 라디오 드라마와 연극 공연의 차이점을 학생들에게 주지시켜야만 한다.<sup>9)</sup>

요즘 들어 교사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교수-학습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둘째와 셋째이다. 그중에서 실제 공연해보기는 교과활동에 대한 재량권이 부족한 중등학교에서는 현실화되기 어려운 방법이다.<sup>10)</sup> 특히 대학 입시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큰 인문계열 고등학교에서 해당 작품을 실제 공연으로 완성시켜본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요구라 하겠다. 앞으로 교육현장의 환경이 변화될 때를 대비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할 필요는 있겠으나, 대학입시에 종속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 가능성 또한 예측하기 어렵기만 하다.<sup>11)</sup>

해당 작품을 실제 공연하는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학습자에게 연극공연을 체계적 하는 방법이 셋째이겠는데, 보다 적극적인 방법은 ‘연극 놀이’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촌극을 짜보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담당 교사가 연극공연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최근 교사들에게 연극체험을 제공하는 연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 있을 것이다.<sup>12)</sup> 각종 연수학습계획(program)에서는

9) 김재석, 「중학교 국어교과서 소재 희곡의 현황과 희곡 읽기의 한 방법」, 『문학과학언어』 제21집, 문학과학언어학회, 1999. 197면.

10) 김재석, 위의 글, 197~198면 참조.

11) 희곡교육을 공연과 연관시켜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한 연구로는 강진우(「희곡 극화 교수-학습 모형에서의 교사 역할 연구」, 안동대 석사학위논문, 1998)가 있다. 현장 수업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탐색해보아야 하겠지만, 희곡의 공연화·학습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2) 전국적으로 많은 단체들이 연극 연수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서울의 극단 「연우무대」는 일찍부터 교사연수 계획을 실천해왔으며, 극단 「사다리」는 부설

교사들에게 연극의 원리를 교육하는 한편, 그들로 하여금 배우로서의 경험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연극 경험을 쌓아 희곡 지도를 효과적으로 진행해보려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어교과를 담당하는 전체 교사에 비하면 월등히 적은 수이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학습자들이 체험하는 희곡의 교수-학습 방법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이번에 이루어진 설문 조사를 분석해보면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다.<sup>13)</sup>

<표 1> 15. 선생님의 지도하에 연극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응답항목	중 학교		고 등 학 교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특활 시간에 연극반 지도 교사의 지도를 받았다.	5	2.9	7	4.1
학급 활동의 일환으로 담임 선생님의 지도를 받았다.	10	5.9	6	3.6
수업시간에 교과 내용을 담당 선생님의 지도로 해보았다.	105	61.8	40	23.7
전혀 없다.	50	29.4	116	68.6
합 계	170	100	169	100

연구소인 「연극놀이연구소」(<http://www.sadari.org>)를 주축으로 하여 연극놀이 중심으로 연수를 열어오고 있다. 대구에서는 극단 「함께사는세상」에서 1991년부터 ‘교사를 위한 연극교실’을 주관해오고 있으며, 최근 부설 연구소로 「연극과교육 연구소」(<http://ktheatre.wo.to>)를 개소하여 교사연수에 대하여 전문화를 꾀하고 있다.

- 13) 설문지는 [부록1]에 실려 있다. 전체 설문자 중에서 모든 문항에 대해 정확하게 응답한, 중학교 학생 172명과 고등학교 학생 180명만 대상으로 삼아 분석하였다. 때때로 합계 인원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해당 설문만 답을 하지 않았거나, 복수로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중학교 과정에서 61.8%의 학생들이 연극을 해본 적이 있다고 했는데 비해 고등학교에서는 전혀 없다는 학생이 68.6%를 차지하고 있다. 입시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교과활동에 있어서 교사의 재량권이 고등학교에 비해 높은 중학교에서는 ‘연극놀이’방식이 좀더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설문에 대한 응답으로 본다면, 중학교의 경우에는 희곡교육이 연극체험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다. 그러나 <설문 16번> 문항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학습자들이 연극 체험을 희곡공부와는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표 2> 14. 여러분이 경험한 희곡 수업방식은 어떠했습니까?

응답항목	중 학교		고 등 학 교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소설이나 시 교육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92	51.7	115	72.8
입체 낭독 방식을 사용했다.	26	14.6	13	8.2
희곡의 한 부분, 혹은 전체를 모두 별로 공연해보았다.	39	21.9	21	13.3
영상자료(video tape)를 통해 관람했다.	21	11.8	9	5.7
합 계	178	100	158	100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소설이나 시 교육과 희곡 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이 별 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중학교의 경우 연극체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느끼는 교수-학습 방법상의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51%나 된다는 사실이 문제가 된다. 아마도 학습자들의 연극체험이 희곡교육과 긴밀하게 연계가 이루어져서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연극체험은 수업과 무관한 별개의 활동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속에서 희곡의 원리를 찾아보고 이해하려는 입장에서 잊지 못한 것이다.<sup>14)</sup> 그 외에도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연극이라면 ‘극장무

대에 올려지는 공연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연극체험이 '올바른 연극'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점도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sup>14)</sup>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희곡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방법들이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어서 어느 한 방법을 선택하기에 주저되는 것도 사실이다. 학습자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으면서도 수업시수의 제한을 덜 받을 수 있는 희곡 교수-학습 방법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만 한다. 그 가능성의 하나로 희곡교육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들이 지닌 장점이 함께 어울려 활용될 수 있는 곳이 인터넷에 존재하는 가상공간(Cyber Space)이 아닐까 한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미흡한 측면이 많이 있을지라도, 정보산업기술의 발전 속도로 미루어 볼 때 그 무한한 가능성에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다. 인터넷 활용 교육의 근본이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을 중요시하는 구성주의 학습관과 상통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를 유발시키고, 개인의 인지적 작용과 개인이 속한 사회에의 참여라는 두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해 지식이 끊임없이 수정되고 보완된다는 점에서 구성주의 학습관은 웹기반 교육과 긴밀한 연계성을 지니고 있다.<sup>16)</sup>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희곡교육에서 인터넷을 활용할 때 예상되는 효과를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희곡교육이 작품의 내용 중심 수업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

14) 물론 이러한 추론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번 연구의 목적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좀더 상세하게 그 이유를 밝혀 낼만한 추가적 설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후에 연극놀이 활용과 관계하여 연구해볼 계획이다.

15) 희곡교육에서 촌극 활용의 사례에 대한 연구는 김재석의 「희곡 교육에서 촌극 활용에 대한 실증적 연구」(『안동어문학』 제1집, 안동어문학회, 1996)를 참조

16) 강인애, 「웹기반 교육과 구성주의」, 『웹기반 교육』, 교육과학사, 1999 참조

공연이 전제되는 희곡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연극공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제한된 수업시수로 인하여 연극에 관한 학습까지 한꺼번에 진행할 수 없는 형편이다. 연극에 대한 정보가 풍부한 웹 사이트를 인터넷을 통해 접속함으로써 연극 자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학습자들로 하여금 희곡의 공연성을 쉽게 이해하게 할 것이다.

둘째, 희곡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다. “정보기술을 활용한 교육환경은 주어진 정보나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필요한 것을 찾으려는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태도”<sup>17)</sup>를 지니게 한다. 구체적으로는, 소설이나 시와 다른 특성들을 느낄 수 있는 자료들을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고, 학습자의 질문을 받고 이에 답변하는 게시판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학습자들의 학습 참여도를 높일 수 있게 한다. 학습자들이 희곡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문사항을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셋째, 희곡교육에서도 개별화 수업이 가능해진다. 단계별로 부과된 과제를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하여 평가하고 되돌려 줌(feed back)으로써 교실 내에서 불가능한 개별화 수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게 된다. 폼 필드(form field)<sup>18)</sup>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입력한 정보를 처리하면 학습자의 개인 성취를 평가하기가 쉬워진다. 수행평가가 취지의 건전함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 여건의 취약함으로 인하여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용한 효과라 하겠다.

17) 강인애·이인희·황승연, 「지식기반사회에서 정보기술에 의한 학습환경의 변화」, 『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999. 32면.

18) 폼 필드(form field)는, 웹 페이지에서 내용을 입력받거나, 여러 항목 중에 선택하거나, 확인 상자에 선택 표시를 하는 등의 작업을 하게 하는 문서를 만들 때 사용되는 개별 항목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폼필드로 입력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CGI(Common Gateway Interface)로 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넷째, 희곡교육에 허용된 단위 시수에서 다루지 못하는 내용들을 소화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국어교과서는 국어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희곡교육에도 많은 시간을 할당하지 못하고 있다. 희곡교육의 경우에는 극화된 작품 감상이라든가, 대본 쓰기, 작품의 공연 체험 등 타 문학갈래에 비해 더 많은 시수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원의 교육에 시수를 일방적으로 배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한된 시수 내에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인터넷으로 학습자들의 자발성을 극대화하여 자율학습을 이끌어낸다면 수업 시간에 다루어야 할 내용의 많은 부분을 줄일 수가 있게 된다.

다섯째, 방과후의 연극활동도 수용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희곡교육이 활성화되고, 자료들이 축적된 서버를 활용하게 되면 방과후 활동의 하나로 이루어지는 연극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천리안」, 「나우누리」, 「하이텔」 등의 대형 BBS에 속해 있는 연극동호회들의 활동에서 그러한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그들은 정보의 교환에 머물지 않고 직접 연극을 제작하여 공연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그들은 인터넷의 방대한 자료들을 활용할 뿐 아니라, 인력을 조직화하여 자신들의 생각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힘이 학교 현장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sup>19)</sup>

19)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웹이 만능의 수업매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으며, 웹이 지닌 단점도 기억해두어야 한다. 첫째, 정보의 전달속도가 비디오 테이프나 TV, 그리고 CD-Rom보다 빠르지 못하다. 둘째,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전화나 화상회의 수준만큼의 상호작용을 기대할 수 없다. 셋째, 웹상의 정보들이 대부분 텍스트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유용성은 책이나 잡지에 미치지 못한다.

백영균, 『웹 기반 학습의 설계』, 양서원, 1999. 37면.

### 3. '인터넷 활용 교육'(WBI)를 위한 기반 검토

#### 3.1. 학습자들의 기반 여건

인터넷을 활용하는 희곡 교수-학습방법론이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학습자 집단의 수용 능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인터넷을 활용할 수 없다면 원천적으로 무효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컴퓨터 활용능력이 교사를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말하지만, 학습자 집단의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서는 교수설계(Instruction design)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먼저, 학습자들의 설비(hardware) 조건부터 따져보기로 하자.

<표 3> 1. 여러분의 집에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습니까?

응답항목	중 학교		고 등 학교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없다.	30	17.4	38	21.2
혼자 쓰는 컴퓨터가 있다.	19	11	36	20.1
가족과 함께 쓰는 컴퓨터가 있다.	123	71.5	105	58.7
합 계	172	100	177	100

<표 4> 2. 여러분이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기종은 무엇입니까?

응답항목	중 학교		고 등 학교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없다.	30	17.4	38	21.2
386 급			1	0.5
486 급	18	10.4	21	11.7
펜티엄 급 이상	124	72.1	119	66.4
합 계	172	100	177	100

<표 3>과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중학교 학생의 약 80%, 고등학생의 78%가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가족과 함께 쓰고 있지만, 대다수 부모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이 학생들에 비해 뒤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생 형제들 사이의 공유로 보이며, 따라서 집에서 컴퓨터를 통한 학습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여겨진다.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기종의 절대 다수가 펜티엄급 이상이어서 인터넷을 활용하는데 무리가 없다. 집에 컴퓨터가 없다고 하더라도 동네마다 자리잡고 있는 PC방을 이용한다면 학습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므로, 교육에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sup>20)</sup> 학습자 개인의 여건과 더불어 학교의 여건도 중요하다. 그동안 꾸준하게 이루어져 온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인하여 학교의 여건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설문 12>에서 각 학교의 컴퓨터실의 유무를 물었을 때 응답학교에는 전부 갖추어져 있었으며, 컴퓨터 기종도 펜티엄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나 집에서 인터넷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 사회 일각에서는 PC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여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업적 이득을 위하여 청소년들을 유해한 환경에 노출시키는 상황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지, PC방 자체에 대하여 존재를 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컴퓨터의 제반 여건이 비약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시점에서 컴퓨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과소비를 억제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공공성을 지닌 기관이 PC방을 운용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정보문화를 접할 기회를 많이 마련해주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표 5> 12. 학교 실습실에 있는 컴퓨터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응답항목	중 학교		고 등 학 교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개인은 전혀 사용할 수 없다.	47	27.8	84	47.5
담당 선생님의 허락을 얻어서 사용 가능하다.	89	52.7	89	50.3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33	19.5	4	2.2
합 계	169	100	177	100

컴퓨터실의 이용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갖추어진 기반도 무용지물이 된다. <표 5>의 결과를 보면, 학교에 있는 컴퓨터 실습실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번 조사에서 중학교의 1개 학교(대구지역의 A중학), 고등학교의 2개 학교(대구지역의 A고등학교, 경북의 D고등학교)에서 실습실을 거의 개방하지 않고 있었다. 표집 된 8개 학교가 우리나라 중등교육현장의 사정을 대표하긴 어렵겠지만, 학생들이 학교내 시설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많은 일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수긍이 가는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규 수업시간 외에도 실습실의 컴퓨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인터넷 활용 교육’을 위한 학습 여건은 월등히 좋아질 것이다.<sup>21)</sup>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수록 컴퓨터 실습실의 유지 보수비는 많이 들겠지만, 컴퓨터의 평균 수명이 3년을 넘기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해본다면 급게 모셔두는 것보다는 많이 사용하는 편이 훨씬 이득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21) 학교 당국의 의지와 시설 여건이 ‘인터넷 활용 교육’(WBI)에서 학습자의 동기 유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최근 대부분의 수업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는 인천 도화초등학교가 좋은 예가 된다. 각 교실마다 6대의 컴퓨터가 있고, 프로젝션 텔레비전, 캠코터, 실물화상기가 1대씩 구비되어 있으며, 45대씩의 컴퓨터가 있는 2개의 멀티미디어실이 있다(「한겨레신문」, 2000년 12월 1일자 보도). 이러한 추세에 반하여 컴퓨터의 활용에 인색하다면, 지식기반사회에서 낙후된 학생들을 키울 수밖에 없게 된다.

현재 중고등학교에 고속 인터넷 전용망이 들어오고 있으며, 앞으로 전체 학교가 광케이블로 연결이 되면 인터넷을 활용하는 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게 된다. 그렇지만 '인터넷 활용 교육'(WBI)이 교실을 벗어난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습자들이 집에서 어떤 환경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표 6> 3. 여러분이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응답항목	중 학교		고 등 학 교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사용한 적이 없다.	83	49.4	76	45.8
통신업체(천리안, 하이텔 등)를 통해 모뎀으로 접속	45	26.8	53	31.9
고속인터넷전용망(두루넷, 하나로 등)을 통해 접속	40	23.8	37	22.3
합 계	178	100	177	100

인터넷을 이용한 회곡 교수-학습 방법이 실시될 때 인터넷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표 6>의 결과를 통해 보면, 현재 약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집에서 인터넷 접속을 하는 학생들 중의 절반 정도가 고속 인터넷 전용망을 사용하고 있어서 인터넷 접속에 큰 애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모뎀을 통한 접속이라 하더라도 동영상 같이 용량이 크고, 높은 수준의 처리 속도를 요구하는 자료가 아니라면 학습에 있어서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 앞으로 고속 인터넷 전용망이 확충되면 인터넷 접속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들이 인터넷에 대해 얼마만큼 친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도 중요한 여건이라 하겠다. 인터넷 활용은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학습자의 능동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므로 인터넷에 대한 친숙도가 높을수록 학습

의 효과도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학습자들의 하루 평균 접속시간을 통해 알아보기로 하자.

<표 7> 4. 여러분이 매일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은 평균 어느 정도입니까?

응답항목	중 학교		고 등 학 교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사용하지 않는다.	58	34.7	62	38.8
1시간 미만	43	25.7	47	29.4
1~2 시간 정도	44	26.3	34	21.2
2~3 시간 정도	17	10.2	5	3.1
3시간 이상	5	3	12	7.5
합 계	167	100	160	100

인터넷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학생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1/3 정도가 된다. 그 나머지 학생들은 매일 인터넷에 접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겠다. 중고등학교처럼 수업 외 시간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도 하루 2시간 이상 평균 사용하는 학생이 10%정도 된다는 사실은 놀랍다. 이런 학생들은 주로 이야기방(chatting room)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인터넷을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인터넷에서 이용하는 정보는 주로 연예, 오락 류로 추측된다. 그러한 성향을 좀더 상세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학습에 인터넷을 이용해 본 빈도수와 그들이 자주 가는 웹 사이트를 조사해 보았다.

<표 8> 5. 인터넷을 이용하여 학교 숙제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응답항목	중 학교		고 등 학 교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없다.	61	35.9	70	39.8
1~2회 정도	33	19.4	45	25.6
3~5회 정도	25	14.7	27	15.3
6회 이상	51	30	34	19.3
합 계	170	100	176	100

인터넷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그들에게 부과된 과제를 풀기 위하여 인터넷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입시 부담이 적은 중학교 과정에서는 수행평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면서 교과서 외의 자료를 활용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sup>22)</sup>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인터넷을 이용한 학습에 있어서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

<설문 6>의 “여러분이 자주 출입하는 웹 사이트(홈 페이지)를 순서대로 적어주세요”에서, 중고등학교를 통털어 「세이 클럽(say club)」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 그 외에는 「다음 넷(Daum net)」, 「아이 러브 스쿨(I love school)」, 「야후(yahoo)」, 「심마니」의 순이었다. 「세이 클럽(say club)」은 (주)네오위즈의 종합 커뮤니티 서비스로 멀티미디어 채팅, 스타채팅 및 동호회,

22) 연구자의 한 사람인 김재석의 웹 사이트(<http://bh.knu.ac.kr/~jsuk>, <신명>)에도 숙제를 위하여 방문한 학생들의 글이 종종 발견된다. 흥미로운 것은, 방명록의 기록만으로 볼 때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많고 그 보다 더 많은 수가 초등학교 학생이라는 사실이다. 물론 출입자의 정확한 통계가 불가능한 사항이어서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겠으나, <표 9>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초등학교 학생들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숙제를 하는데 더욱 적극적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하겠다.

음악편지, 무료 이메일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 넷(Daum net)」도 거의 동일한 영업내용(contents)를 가진 곳이다. 인터넷에 접속한 학습자들은 「세이 클럽(say club)」과 「다음 넷(Daum net)」을 통해 이야기 나누기(chatting)에 몰두하고 있으며, 동호회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관심사를 나누기도 한다. 「아이 러브 스쿨(I love school)」은 전국 초중고 졸업생과 재학생을 위한 인터넷 동문회를 표방한 웹 사이트(web site)이다. 주로 졸업생들 사이의 연락을 이어주는 곳으로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소모적 모임이 잦아진다는 비판적 여론도 만만치 않은 곳이다. 「야후」와 「심마니」는 가상공간(Cyber Space)에 존재하는 자료들의 효율적인 검색이 가능한 엔진을 탑재한 웹 사이트이다. 이곳을 자주 찾는다는 사실은 학습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찾아내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한 점을 좀더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교육에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 그들에게 물어 보았다.

<표 9> 11. 학교교육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데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응답항목	중 학교		고 등 학교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터넷은 오락용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 같다.	10	6	11	6.4
숙제를 하기 위해 자료를 찾는 정도로는 활용될 것 같다.	41	24	53	30.6
학교 수업에 대해 예습과 복습이 가능한 보조 수단으로 이용될 것 같다.	21	12.2	12	7
앞으로 화상수업처럼, 인터넷과 학교교육이 밀접하게 발전할 것 같다.	99	57.8	97	56
합 계	171	100	176	100

교육과 인터넷의 관련성에 대해 응답자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고등학교를 막론하고 50%이상의 학생들이 인터넷과 학교교육이 밀접하게 발전할 것으로 보았는데 비해, 의미를 두지 않는 층은 6%정도에 불과했다. 이러한 응답은 학습자들이 인터넷을 생활의 한 부분으로 여기면서, 교육에 관련되어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볼 때, '인터넷 활용 교육'의 여건은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가, 그보다는 농촌과 산촌지역이 '인터넷 활용 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이 부족하긴 하지만, 더 이상의 수준이 갖추어지길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교육과 인터넷을 결합시키는 교수-학습 방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설문응답자들에게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현재에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교육관련 웹 사이트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상당수의 학습자들이 오락적인 웹 사이트에 오래 머물고 있다. 이들을 건전하고 유익한 웹 사이트로 이끌기 위해서도 인터넷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3.2. 희곡 관련 웹 사이트(web site) 현황

인터넷에서 희곡교육과 관련 있는 웹 사이트의 숫자와 정보의 수준의 정도에 대해 보고된 바는 아직 없다.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라고도 하지만, 필요한 정보의 소재를 찾아가는 일도 그렇고, 유익한 정보와 그렇지 못한 정보를 구분해내는 작업도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만만하지 않다.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이 부재하다면 아무리 많은 수의 유익한 정보들이 있다고 하여도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된다. 그런 점에서 학습자의 정보 검색 능력도 대단히 중요하다 하겠다. 우선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학습자 집단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조사해 보았다.

<표 10> 7. '야후'나 '심마니'같은 검색 엔진 기능을 사용해서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까?

응답항목	중 학교		고 등 학 교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없다.	26	15	5	2.8
서툴지만 가능하다.	72	42	119	66.5
자주 사용해서 전혀 불편이 없다.	74	43	55	30.7
합 계	172	100	179	100

중학생의 경우 83%, 고등학생의 경우 96% 정도의 학생들이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 '야후' '심마니' 같은 검색엔진을 장착한 웹 사이트의 기능이 날로 강화되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는 일은 점차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정보의 소재를 찾는 것보다 자신에게 적절한 자료를 골라 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교사가 학습에 적절한 수준의 웹 사이트를 모아 놓은 자료실을 운영하게 되면 학습 효과가 커질 것이다. 가장 이상적으로 본다면 희곡교육용 서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것은 대단한 자금과 시간이 투자되어야만 하기에 그렇게 쉽지 않은 일로 보인다. 우선 희곡교육에 활용될 수 있을 웹 사이트의 현황을 알아보고, 그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웹 사이트를 소개해보기로 한다.

#### 1) 희곡이론 및 연극이론 관련 웹 사이트

희곡교육에 가장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곳이다. 아직까지 희곡이나 연극 이론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웹 사이트는 없으며, 초보적인 이론들을 개관해 놓은 곳이 대부분이다. 「조명이 있는 교실」에는 학생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며, 학교연극에 대한 자료도 많은 편이어서 추천할만하다. 희곡 및 연극 연구자들의 웹 사이트와 연

계해서 활용하면 효율성이 커지겠지만, 앞으로 이론을 더욱 상세하게 다룬 웹 사이트가 나와야 할 것이다.

**대표적 웹 사이트 : 조명이 있는 교실**(<http://mypage.chaneli.net/edulight>)  
**민영이의 홈**(<http://www.otr.co.kr>) **Acting Zone**(<http://myhome.netsgo.com/artactor>)  
**이텍스트 코리아-연극관**([www.textkorea.com](http://www.textkorea.com))

## 2) 연극동호회 웹 사이트

연극동호회의 웹 사이트에는 비전문가들의 경험이 녹아 있는 생생한 자료가 많다는 장점이 있다. 연극을 직업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연극에 대해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진 애호가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는 곳이 많다. 「한국 교사 연극 협회 - 연극사랑」은 교사들이 극단을 운영하며 얻은 경험이 농축되어 있는 곳이어서 희곡교육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하이텔 연극동호회」에는 연극에 대한 갖가지 정보를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회원이 되면 1년에 한 번 정도 이루어지는 정기공연에 참가할 수도 있다.

**대표적 웹 사이트 : 한국교사연극협회 연극사랑**(<http://www.ktta.pe.kr>)  
**극단 사다리**(<http://www.sadari.org>) **연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http://www.drama.co.kr/theater>) **교사극단 나무를 심는 사람들**(<http://www.ktu.or.kr/~nasimsa>)

## 3) 희곡 작품 제공 웹 사이트

교과서에 실려 있는 희곡 외에 더 많은 희곡작품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희곡작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대본자료실」이며, 약 2000여 편의 공연대본을 검색해볼 수 있다. 현직 교사들의 웹 사이트에 실려 있는 희곡작품은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가와 관련 있는 작품들이 많고, 자료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

일한 작품이 많은 편이다. 잘못된 글자가 많고, 부분적으로 빠져버린 희곡작품도 있기 때문에 교육 자료를 선택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 웹 사이트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대본자료실(<http://www.kcaf.or.kr>) 이한수의 국어공부(<http://javanet.webpd.co.kr>) 이규태-국어사랑(<http://user.chollian.net/~godshand>)

#### 4) 공연정보 제공 웹 사이트

현재 공연되고 있는 작품이나, 과거에 공연되었던 유명 작품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곳은 상당히 많다. 이러한 웹 사이트는 학생들이 연극공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겠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전문적인 정보는 한국연극협회에서 간행하는 월간지 『한국연극』의 웹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다. 책임 있는 편집진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정확도에서는 가장 믿을 수 있으나, 한 달 정도 늦게 볼 수 있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다. 그 외에 「하재마을」처럼 연극공연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면서, 유료 회원에 한하여 할인된 금액으로 공연을 관람하게 해주는 곳도 있다.

**대표적 웹 사이트 :** 한국연극(<http://www.ktheater.or.kr>) 공연기획 이다(<http://eda.id.ro>) 하재마을(<http://www.haje.co.kr>)

#### 5) 전문연구자와 학회 웹 사이트

희곡의 이론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혹은 작품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다. 중고등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지나치게 전문적이지만, 교사들이 활용한다면 좀더 깊이 있는 지도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승국 교수의 「한국연극학교실」에는 한국희곡사와 연극사에 관련된 정보들이 있고, 부산대 민병욱 교수의 「연극마을」에는

교육연극에 대한 자료가 많다.

대표적 웹 사이트 : 한국극예술학회(<http://www.kdrama.or.kr>) 한국연극학회(<http://drama.or.kr>) 양승국교수의 한국연극학교실(<http://profyang.ms98.net>) 민병욱교수의 연극마을(<http://web.pusan.ac.kr/~bmw>)

#### 6) 중고등학교 연극반 및 청소년 연극관련 웹 사이트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연극활동이 정리되어 있는 웹 사이트들이다. 전문가들의 연극공연보다 학생들의 입장에 훨씬 가까이 가 있는 정보들이 많아서 희곡교육에 큰 도움이 된다. 특히 희곡교육을 연극체험과 연관시킬 경우,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본을 구할 수도 있고, 그들의 공연정함을 간접 경험함으로써 연극체험 수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대표적 웹 사이트 : 계성고등학교 연극반(<http://members.tripod.lycos.co.kr/kespec>) 이천고등학교 연극동아리 ‘깃’(<http://my.dreamwiz.com/kahy>)

## 4. ‘인터넷 활용 교육’(WBI)을 위한 웹 사이트 모형<sup>23)</sup>

‘인터넷 활용 교육’(WBI)을 위해서는 담당 교사의 웹 사이트는 필수적이다. 학습자가 개별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다니기보다는 담당교사의 웹 사이트를 통하여 모든 자료들이 연계되어 운용되는 편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지금 인터넷상에는 상당한 수의 국어교사들의 웹 사이트가

---

23) 이번 연구를 위하여 웹 사이트를 만들고 일정 시간 운영을 해보았다. 앞으로 계속 운영해보면서 희곡교육에서 인터넷 활용에 대해 계속 연구해가고자 한다. 홈페이지의 연결은 김재석의 <신명>(<http://bh.knu.ac.kr/~jsuk>)에 들어와서 <연극과교육의 방>으로 들어가면 된다.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웹 사이트 제작에 대한 열기가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것 같다.<sup>24)</sup> 국어교사들의 웹 사이트 중에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도 있고,<sup>25)</sup> 학생과 교사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운용되는 곳<sup>26)</sup>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학생들과의 친목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운용되고 있다.

‘인터넷 활용 교육’(WBI)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사가 자신의 웹 사이트를 직접 제작·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일부 교사들 중에는 화려한 웹 사이트를 선호하여 외부 제작에 맡기는 경우도 있으나, 자료를 보충할 때마다 일일이 남의 손을 빌어야 하므로 유지 관리에 어려운 점이 많다. 외양은 소박하지만 자신이 필요한 요소들을 두루 갖춘 웹 사이트를 스스로 마련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 하겠다. 최근 문서작성기(word processor)처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웹 저작도구 ‘나모’가 나오으로써 웹 사이트 만들기가 한결 쉬워졌다.<sup>27)</sup>

‘인터넷 활용 교육’(WBI)에 필요한 웹 사이트는 ‘대화형 웹 사이트’가 되어야 한다. 대화형 웹 사이트는 교사와 학습자 사이에 의견 교환을 쉽

24) 김재석의 웹 사이트 <신명>(http://bh.knu.ac.kr/~jsuk)에 가면 국어교사들의 대표적 웹 사이트가 연결되어 있다.

25) 대표적인 곳으로 대구신명여고에 근무하는 이상현교사의 <국어책에 없는 국어 이야기>(http://edu.nuguna.com/main.html)가 있다. 특히 소설교육에 있어서 ‘영상소설’을 활용하고 있다. 영상소설이란, 한편의 소설을 구성 단계에 맞추어 10여 장면의 그림과 간략한 줄거리로 재구성하여 짧은 시간 안에 소설의 내용뿐만 아니라 주제, 구성, 문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독후감을 써낼 수 있다.

26) 대표적인 곳으로 대구경일여고에 근무하는 박전현교사의 <온라인 국어교사>(http://9594.pe.kr)가 있다. 무료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국어과목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외에 컴퓨터 운용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조언을 해주고 있어서 인기가 높다.

27) (주) 나모인터랙티브의 웹 사이트(http://www.namo.co.kr)에 가면 평가판을 무료로 내려 받아 사용해볼 수 있다. 나모를 이용해서 만드는 웹 사이트 제작기법에 대해서는 많은 웹 사이트가 존재하므로 쉽게 도움 받을 수 있다.

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겠지만, CGI<sup>28)</sup> 프로그램으로 게시판을 운용하면 그러한 목적을 손쉽게 달성할 수 있다. CGI 프로그램을 짜서 사용하기보다는 이미 나와 있는 유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크레이지보드(crazy www board),<sup>29)</sup> 테크 노트(technote),<sup>30)</sup> 지지 인터넷(zizi's internet)<sup>31)</sup>과 같은 프로그램이 대표적인데, 원칙적으로 유료이지만 무료 시험판도 웹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게시판 관리가 쉬울 뿐만 아니라, 게시판(board) 생성이 쉽고,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의 숫자에도 제한이 없다. 대체로 자료 공유 및 통합관리 환경이 제공되며, 회원 인증이 가능하여 불필요한 학생들의 접근도 차단할 수가 있다. 프로그램 자체에 전자우편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학습자 개인이나 전원에게 전자우편을 보낼 때 유용하게 쓰인다. 자료파일을 서버에 올리고 내리는(up and down load) 기능이 있어서 교사와 학습자 사이의 자료 공유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웹 사이트의 기본 골격 외에는 게시판을 설치하여 운용하게 되면, 웹 사이트를 만들고 운용하는 힘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웹 사이트 제작에 드는 시간을 줄이면서, 운용의 묘를 살리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교육'(WBI)의 기본이라 하겠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게시판을 이용한 '인터넷 활용 수업'(WBI)를 위

28) Common Gateway Interface(공통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 : 웹상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거나 사용자의 입력을 처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웹 브라우저로부터 입력받은 명령어를 웹 서버가 입력받아 명령어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브라우저로 보여 주는 방법이다. CG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CGI라는 스크립트를 이용하는데 스크립트는 도스의 배치 파일과 비슷하다. CGI 스크립트로 작성된 명령어들은 HTML 문서와 함께 동작하며, 서버는 스크립트의 명령을 받아 실행한 결과를 보낸다. 보통 약자로 CGI라고 부른다.

29) 노브레이크테크놀로지(NobreakTechnologies)의 웹 사이트([http://cwb2000.nobreak.com/kr/frame\\_kr.html](http://cwb2000.nobreak.com/kr/frame_kr.html))에 가면 프로그램을 구할 수 있다.

30) 테크노트(<http://www.technote.co.kr>)에 가면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할 수 있다.

31) 지지라인(<http://ziziline.com>)에 가면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할 수 있다.

한 웹 사이트 모형을 제시해보면 아래와 같다.

명 칭	주 요 내 용(용도)
1) 수업 안내판	교과담당교사의 알림글
2) 가상의 교실	수업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학습자의 질문 받는 곳
3) 참고 자료실	유관 웹 사이트 연결
4) 검색엔진 모음	심마니, 야후, 한미트 등 각종 검색엔진 모음
5) 과제 제출 방	과제를 올릴 수 있는 곳, 동영상 등의 참고 자료 연결
6) 토론실	토의 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올림
7) 쉼터	학습자들 사이의 가벼운 이야기들

1) 수업 안내판은 담당교사가 학습자에게 전달해야 할 모든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게재하는 공간으로 사용하며, 교실에서 언급한 과제라 하더라도 이곳에 정리해서 올려두어 학습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은 글을 쓸 수 없도록 게시판 설정을 해두어야 한다.

2) 가상의 교실에는 진도에 맞추어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하는 곳으로 활용한다. 시간이 지난 자료는 삭제하여, 제 시간에 들어가야 필요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수업에 대한 의문사항을 질문 받는 곳이다. 교사는 수시로 이곳을 살펴 질문에 대해 적절한 응답을 해주어야 한다.

3) 참고 자료실의 자료들은 지속성을 지니는 것들을 모아두는 곳이며, 두 부분의 하위 갈래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인터넷에 존재하는 자료들을 연결(link)시켜 두는 곳으로, 상시적으로 활용되어질 자료들을 이곳에 배치해둔다. 둘째는 게시판을 활용하여 필요한 자료들을 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곳으로, 문서 자료뿐만 아니라 노래·동영상·사진 등의 파일을 올려두고 필요할 때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게시판의 설정에서 자료의 올리고 내림(up and down load)이 가능하도록 해두어야 한다.

4) 검색엔진 모음은 학습자들이 원하는 자료를 편리하게 검색해볼 수

있도록 함께 모아 두는 것을 말한다. 각각의 검색엔진마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그 특징을 비교하여 사용하게 되면 학습자들이 원하는 자료 검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5) 과제 제출방은 학습자들에게 부과된 과제의 결과물을 파일 형태로 올려놓을 수 있는 곳이다. 교사에게 서면 제출되는 과제일 경우 학습자 상호간에는 영향을 주고받지 못하는 반면, 게시판에 올려진 자료는 학습자들도 열람이 가능하므로 자가 진단이 가능해진다. 게시판의 설정에서 자료의 올리고 내림(up and down load)이 가능하도록 해두어야 한다.

6) 토론실은 교사가 부과한 논제에 대해 학습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올리는 공간이다. 게시판을 이용하면, <그림 1>에서 보듯이 ‘글꼬리’를 달아서 논의를 계속할 수도 있고, 별도의 글을 올려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도 있다.

7) 쉼터는 학습목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벼운 이야기를 쓰는 곳이다. 자칫 딱딱해질 수 있는 공간에 약간의 온기를 불어 넣는 공간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 요즘 중등학교 학생들이 자주 출입하는 「세이클럽」이나 「다음 넷」의 자유게시판 정도를 생각하면 되겠다.

204	<input type="checkbox"/> 글세요...	조현구9조	2000/11/26	18
203	<input checked="" type="radio"/> Re: 글세요...	박상영	2000/11/27	14
202	<input type="checkbox"/> 답변 같지 않은 답변들 ^^	2조 침묵자	2000/11/26	17
201	<input checked="" type="radio"/> Re: 답변 같지 않은 답변들 ^^	2조	2000/11/26	10
200	<input checked="" type="radio"/> Re: Re: 답변 같지 않은 답변들 ^^	박상영	2000/11/27	11
199	<input type="checkbox"/> 질문같지 않은 질문(*^~^*)	박상영	2000/11/23	32
198	<input type="checkbox"/> 참담합니다...	전영곤	2000/11/22	33
197	<input checked="" type="radio"/> Re: 참담합니다...	상영	2000/11/22	30
196	<input checked="" type="radio"/> Re: 고맙습니다.	전영곤	2000/11/23	17

[1] [2] [3] [4] [5] [6] [7] [8] [9] [10] [next] [23]

Copyright (c) 1999-1999 zizi. All rights reserved. [일본 사용자중](#)

제목    글쓴이    작성일자    본문

<그림 1> 게시판을 이용하여 토론실을 운영하는 예

## 5. 인터넷을 활용한 희곡 수업 전략<sup>32)</sup>

‘인터넷 활용 교육’(WBI)에 있어서도 교육의 중심에는 교사가 있어야 한다. 교사는 컴퓨터가 면대면(face to face)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교사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하여 학습자에게 ‘무엇을 제공하여,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분명하게 하는 수업설계를 구안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교사가 희곡교육에서 인터넷 활용의 효과에 대해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효율적인 수업 운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sup>33)</sup>

희곡교육에 인터넷을 활용할 때 예상되는 효과가 실제화 될 수 있는지를 점검해보기 위하여, 현행 중학교 3학년 『국어』에 실려 있는 이강백의 <들판에서>를 대상으로 수업설계(Instruction design)를 구안해보기로 한다. 아무리 좋은 교수-학습 방법이라 하더라도 교육현장의 여건과 맞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그 점을 고려하여 중학교 국어 수업에서 가장 보편화된 수업지도안을 따라가면서 수업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방향에서 ‘인터넷 활용 교육’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고려해보기로 한다.

32) ‘인터넷 활용 교육’(WBI)의 학습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백영균의 『웹 기반 학습의 설계』(양서원)가 주목할만하다. 이 논문에서는 희곡교육에서 인터넷 활용의 효용성을 실제 수업과 연계시켜 논의하고자 하기 때문에, 학습설계의 이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백영균의 입장에 전적으로 따르기로 한다.

33) 담당 교사가 적절한 자료들을 웹 사이트에 게시하여 활용하여야 하겠지만, 학습자들에게 적절한 과제를 부과해주는 것도 꼭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담당 교사가 웹 사이트에 늘 머무르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서, 가상의 교실이 삭막한 공간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는 것이다. 수시로 게시판을 점검하여 보고, 학습자들의 활동에 대해 적절한 응답을 적기에 주어야 한다.

6차교육과정의 중학교 『국어』에는 1학년에 <원술량>, 2학년에 실러(Schiller)의 <빌헤름 텔>이 실려 있어서 <들에서>가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세 번째 만남이 되는 셈이다. <원술량>을 통해 ‘희곡과 연극의 관계’ ‘대사와 지시문’에 대해 학습하였고, <빌헤름 텔>에서 ‘희곡의 구성’을 학습하였기 때문에 희곡과 연극에 대한 기초적 지식은 어느 정도 습득한 단계라고 보아야 한다.

<들판에서>는 ‘희곡의 인물’에 대해 중점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인물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을 세밀하게 읽고 분석하도록 학습자들을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 단원의 학습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전체 4차시로 짜여진 수업내용을 시수 별로 나누어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34)</sup>

시 수	학 습 목 표
1차시	1. 희곡의 특성에 대해 말할 수 있다. 2. 인물과 상황에 따라 말할 수 있다.
2차시	1. 등장인물의 성격을 말할 수 있다. 2. 구성 단계별 사건과 갈등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3차시	1. 작품의 주제를 말할 수 있다. 2. 사건 전개에 따른 인물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다.
4차시	1. 주어진 배역에 따라 연극으로 실현할 수 있다.

각 차시의 학습목표를 달성하는데 ‘인터넷 활용 교육’(WBI)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다음 절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본시수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활

34) 이번 논문에서 참고한 수업지도안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교 중에서 대구에 소재한 B학교의 것이다. 모든 학교의 수업지도안은 비슷했기 때문에 어느 학교의 것을 택하더라도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차시에 연극 실습이 들어 있는데,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앞 차시의 수업을 축약해서 진행하여야 한다고 했다. 4차시의 연극실습은 하지 않는 경향이 대체로 강했다.

발해질 필요가 있다. 다양한 논의를 통해 보다 적절한 ‘인터넷 활용 교육’의 방법이 찾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는 4차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수업을 중심에 두면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수업 효과를 증대 하는데 초점을 맞춘 방법을 구안해보기로 한다. 차시별로 제시되어 있는 인터넷 웹 사이트는 중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적절한 수준의 것들을 선별 하였으며, 웹 사이트의 내용이 비교적 정확하여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을 우선하였다.

## 5.1. 본시 수업<sup>35)</sup>

### 5.1.1. 1차시 수업에서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단원 길잡이와 <들판에서>를 읽 어오는 것이다. 우선 작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단원 길잡이를 통해 희곡의 인물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질 것임을 알았다면, <들판에서>를 읽을 때에도 인물의 특성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학습자가 인물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1학년과 2학년 때 학습했던 내용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겠으며, 그 내용은 ‘희곡과 연극의 특성’으로 요약된다. 교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업자료실의 게시판에 연결시켜 둔다.

#### ① 작가에 대한 이해

김수학교사의 <중학국어공부방>에 있는 이강백에 대한 소개 (<http://203.241.133.39/middroom/ksh/301/auth3111.htm>)를 연결시킨다. 여기에는 <내

35) 이 자리에서는 ‘인터넷 활용 교육’(WBI)의 가능성을 탐색해보는 것이므로, 특정 학교와 학급을 선정하여 검증하는 작업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인터넷 활용 교육’(WBI)이 실제 수업에 활용되면서 얻어지는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은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마>, <쥬라기의 사람들>, <호모세파라투스>, <봄날>, <칠산리>, <동지 선달 꽃 본 듯이>, <북어대加里>, <불지른 남자>, <물고기 남자>, <느낌, 극락같은> 등의 작품에 대한 공연평이 연결되어 있다.

② 희곡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도록 한다.

「스칼라피아」에 있는 희곡의 특성([http://www.scholarpia.com/college/ title\\_2a.htm](http://www.scholarpia.com/college/ title_2a.htm))을 연결시켜 둔다.

③ 연극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Acting Zone」에 있는 연극개관(<http://myhome.netsgo.com/artactor/startmenu1.htm>)을 연결시켜 둔다.


④ <들판에서>를 공연한다면 어떤 형태의 무대가 어울릴 것인가”라는 문제를 내어 희곡을 극화와 관계되는 무대 조건에 대해 이해하도록 한다. 퀴즈 형식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관심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예를 들자면 (a)무대극 (b)마당극 중에서 선택해보도록 한하는 것이다. 학습자가 답을 선택했을 때 정답과 오답에 대한 판정이 웹 페이지에 떠오르고 확인하기를 누르면 간단한 해설이 <그림 2>처럼 웹 브라우저의 새 창에 뜨게 하여 이해를 돕도록 한다.<sup>36)</sup>

퀴즈1.

<들판에서>를 공연한다면 어떤 형태의 무대가 어울릴 것인가?

ㄹ 무대극 ㄹ 마당극

확인하기



36) 웹 브라우저의 새 창 열기는 「나모4.0」의 폼필드에 액션닝기 기능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다.

## 5.1.2 2차시 수업에서

2차시 수업은 인물의 성격과 갈등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보는 내용이다. 현행 교사용지도서에서는 인물의 성격을 ‘전형적 인물’과 ‘개성적 인물’로 나누어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화적 희곡작품을 가지고 중학교 과정에서 인물을 ‘전형적 인물’과 ‘개성적 인물’로 나누어 가르치는 것은 희곡의 인물에 대한 학습효과를 높이기 어렵다.<sup>37)</sup> 갈등의 양상과 연계하여 등장인물을 이해하기에는 ‘주동적 인물’과 ‘반동적 인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더욱 더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희곡에서 사용되는 ‘등장인물’과 ‘갈등’이라는 개념을 학습자들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가학습을 위한 자료를 게재한다.

① 등장인물의 성격에 대해 종합적 판단을 하도록 한다. 웹 사이트에 게시된 유명 연예인 중(<그림 3> 참조)에서 <들판에서>의 등장인물에 적합한 인물을 선택하도록 한다.<sup>38)</sup> 각 문항을 다 선택한 다음에는 <그림 4> 처럼 ‘보내기’를 누르면 담당 교사에게 전자우편으로 전해지도록 폼 필드(form field)를 이용하여 설계하며, 수업시간에 그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등장인물 선택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선택의 이유를 명시한 학습지(부록 2)를 제출하도록 하여 등장인물의 성격을 추론한 근거들에 대해 분명하게 알도록 한다.

37) 상세한 이유는 김재석의 「중학교 국어교과서 소재 희곡의 현황과 희곡 읽기의 한 방법」, 『문학과언어』 제21집, 문학과언어학회, 1999. 194~196면 참조.

38) 유명 연기자들은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배우들을 선정하도록 한다. 학습자들은 연기자들의 특징을 잘 알고 있으므로 등장인물에 적절한 인물을 찾아 낼 수가 있다. <들판에서> 형, 아우, 측량기사는 각각 고유한 인물 형상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러한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배우들을 자신의 경험 범주 내에서 선택하는 것이다. 그 이후에는 그들의 목소리와 몸짓을 통해 작품을 읽어 나갈 수 있게 된다.

② 희곡에서 갈등을 이해하기 위하여 학습자가 친구 사이에 있었던 갈등의 사례를 <과제 제출방>에 올리도록 한다. 이것은 의무적이기보다는 자발적인 면이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수업 시간 중에 게시판에 올라온 사례에서 선택하여 ‘극적 갈등’이 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나누어 보고, 그 결과에 대해 교사가 설명함으로써 일반적 갈등과 다른 희곡적 갈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에 도달하도록 한다.

				
1. 장동건	2. 김훈진	3. 이병헌	4. 이정재	5. 김석훈
				적절한 배우를 선택해주세요.  결과는 수업시 간에 발표합니 다.  학습지에 자신 의 선택 이유를 적어 제출하기 바랍니다.
6. 류시원	7. 송승헌	8. 이규한	9. 주진모	

<그림 3> 유명 연기자를 두고 등장인물을 선택하게 하는 예

이름	
소속 반	<input type="checkbox"/> 1반 <input type="checkbox"/> 2반
전자우편	
형	<input type="checkbox"/> 1번 <input type="checkbox"/> 2번 <input type="checkbox"/> 3번 <input type="checkbox"/> 4번 <input type="checkbox"/> 5번 <input type="checkbox"/> 6번 <input type="checkbox"/> 7번 <input type="checkbox"/> 8번 <input type="checkbox"/> 9번
아우	<input type="checkbox"/> 1번 <input type="checkbox"/> 2번 <input type="checkbox"/> 3번 <input type="checkbox"/> 4번 <input type="checkbox"/> 5번 <input type="checkbox"/> 6번 <input type="checkbox"/> 7번 <input type="checkbox"/> 8번 <input type="checkbox"/> 9번
측량기사	<input type="checkbox"/> 1번 <input type="checkbox"/> 3번 <input type="checkbox"/> 3번 <input type="checkbox"/> 4번 <input type="checkbox"/> 5번 <input type="checkbox"/> 6번 <input type="checkbox"/> 7번 <input type="checkbox"/> 8번 <input type="checkbox"/> 9번
조수1	<input type="checkbox"/> 1번 <input type="checkbox"/> 3번 <input type="checkbox"/> 3번 <input type="checkbox"/> 4번 <input type="checkbox"/> 5번 <input type="checkbox"/> 6번 <input type="checkbox"/> 7번 <input type="checkbox"/> 8번 <input type="checkbox"/> 9번
조수2	<input type="checkbox"/> 1번 <input type="checkbox"/> 3번 <input type="checkbox"/> 3번 <input type="checkbox"/> 4번 <input type="checkbox"/> 5번 <input type="checkbox"/> 6번 <input type="checkbox"/> 7번 <input type="checkbox"/> 8번 <input type="checkbox"/> 9번
투표하기	<input type="checkbox"/> 보내기

<그림 4> 담당 교사에게 자동으로 결과를 보내는 폼필드의 예

### 5.1.3. 3차시 수업에서

<들판에서>는 우화극(寓話劇)의 범주에 든다. 우화극은 등장하는 인물이나 사건에 그 자체가 지닌 고유 의미 외에 또 다른 상징적 의미가 덧붙여 작품의 주제를 형성하는 것이 매력이다. 그 경우, 작품을 보면서 상징의 의미를 추론해 나가는 재미는 마치 작가와 관객이 더불어 즐기는 놀이와 같다. 아쉽게도 <들판에서>는 우화극의 재미가 약한 아쉬움이 있다. 작품 속에 형과 아우, 그리고 측량기사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기제들이 적기에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작품을 현상적으로 단순하게 받아들이거나, 무리한 해석으로 비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sup>39)</sup> 작품이 지닌 한계를 효율적으로 넘어서서 작품의 주제에 도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웹 사이트를 활용하도록 한다.

39) 김재석, 「중학교 국어교과서 소재 희곡의 현황과 희곡 읽기의 한 방법」, 194~196면 참조

① 이솝의 ‘늑대다하고 소리 친 소년’을 읽고 그 이야기가 지닌 의미와 상징에 대해 모둠별로 토론하고 그 생각을 <과제제출방>에 올리도록 한다. 이솝에 관한 자료는 <윤정이의 홈> (<http://myhome.naver.com/angelos73/yj4.htm>)을 연결시켜 둔다.

② ‘형제 사이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애를 회복함’이라는 극의 주제를 남북의 분단문제로 확대해서 인식할 때, 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남북분단의 역사적 상황에 대해 설명한 후 <남일이의 한국 현대사 여행>(<http://my.wes21.com/namilnim/>)을 수업자료실에 연결시켜두고 자가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5.1.4. 4차시 수업에서

4차시 수업에서는 연극공연체험을 하는 경우와 희곡창작체험을 하는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겠다.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연체험을 유도하는 교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공연체험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학습자들이 공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도록 선행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희곡창작체험의 경우에는 <들판에서>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에서 글쓰기를 유도하면 학습자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재미있는 작품들이 나올 수 있다. 연극공연체험이든 희곡창작체험이든 간에 1시간의 수업시간으로는 절대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수업시간은 준비해온 작품을 발표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① 연극공연체험을 위해 수업자료실에 자료를 올려두고 학습자들이 참고하도록 한다.

(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짠 촌극대본들을 게시하여, 공연수준의 정도를 알고 자신감을 가지도록 이끈다.<sup>40)</sup>

40) 촌극공연 대본의 수준에 대해서는 [부록3]을 참조. 연극공연체험이 성공적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연극공연에 역압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학습

(나) 공연 준비과정에서 생기는 의문사항은 <가상의 교실>에서 질문하도록 하고, 공연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쉼터>에 올리도록 하여 흥미를 유발시킨다.

(다) 그 이전에 이루어진 촌극공연의 중요부분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참고자료실>에 연결시켜두도록 한다. 수업시간에 디지털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해두면 동영상을 만드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sup>41)</sup>

② 희곡창작체험을 위해 수업자료실에 자료를 올려두고 학습자들이 참고하도록 한다.

(가) “이 작품에서 제일 어색한 부분이 어디인가?”, “만약 형제가 화해하지 않았다면 결말이 어떻게 될까?” 등등의 질문을 학습자에게 부과하고, 자신의 견해를 <토론실>에 올리도록 한다. 학습자들 사이에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생각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나) 창작 준비과정에서 생기는 의문사항은 <가상의 교실>에서 질문하도록 하고, 창작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쉼터>에 올리도록 하여 흥미를 유발시킨다.

(다) 동학년의 다른 학습자들이 창작한 희곡작품 중에서 선별하여 <참고자료실>에 올려두어, 창작에 참고하도록 한다. 자료로 제

---

자들이 가지기 쉬운 억압을 풀어주기 위해서도 이러한 자료들을 많이 제시하여, 수준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촌극공연 대본은 「교사극단 나무를 심는 사람들」, 극단 「사다리」의 웹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다. 동일한 수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끼리 대본을 공유하는 편이 더욱 효과적이겠다.

41) 디지털캠코더로 찍은 영상을 AVI, MPEG, Quick time과 같은 동영상 파일로 만들기 위해서는 IEEE-1394 편집보드가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중고등학교의 컴퓨터 실습실에는 대체로 이 장비가 갖추어져 있으며, 해당 지역의 교육청에는 디지털 자료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 있으므로 신청하여 이용하면 된다.

시되는 작품일 경우 학생들의 창작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면, 창작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면서 학습자의 창작 욕구를 북돋우는 효과가 있다.

## 5.2. 개별 학습


중학교 과정에서 접할 수 있는 문학갈래 중에서도 희곡은 상당히 낮설다. 소설이나 시에 비해 희곡은 연극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작품 그 자체로 만나기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개별 학습에 도움이 될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올려놓음으로써 수업에서 얻은 지식을 계속해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전체 구성은 <그림 5>의 형태이다.

① <들판에서>와 유사한 이강백의 작품을 제공함으로써 작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도록 한다. 다른 작품을 읽어보고 <과제제출방>에 소감을 올리도록 하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강백의 우화적 작품 <파수꾼>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보도록 한다. 강동우교사의 <나랏말>에 있는 이강백의 우화적 작품 <파수꾼>에 대한 소개를 ([http://www.naramal.com/03sanmun\(1\)/heegok/pasuggun.htm](http://www.naramal.com/03sanmun(1)/heegok/pasuggun.htm)) 연결시켜 둔다. 작품을 구해 참고자료실에 올려둔다.

② 학습자들의 연극관람체험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곳을 <참고자료실>에 연결시켜 둔다. 「한국 교사 연극 협회 - 연극사랑」(<http://www.ktta.pe.kr>)이나 「하계마을」(<http://www.haje.co.kr>)이 좋겠다. 개별적으로 관람한 연극이 있으면, 간략한 소개와 평을 <과제 제출방>이나 <웹터>에 자유롭게 올려 다른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중고등학교 연극반의 웹 사이트를 <참고자료실>에 연결해두어, 학습자들이 쉽게 방문해볼 수 있도록 한다. 「계성고등학교 연극반」

(<http://members.tripod.lycos.co.kr/~kespec/>)이나 「이천고등학교 연극동아리 ‘짓」(<http://my.dreamwiz.com.kahy/>)를 연결해두고, 학생들이 그곳을 방문하여 연극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보도록 유도한다. 같은 연배의 학생들이 연극에 대해 가지는 애정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학습 효과는 높을 것이다.

 **학생개별학습의 장**

☆ cool 1. 이강백의 <파수꾼>에 대해 알아보려면 밑의 연결된 곳으로 가세요.

- ☞ [파수꾼으로 가기](#)
- ☞ <파수꾼>에 대한 소감을 <과제제출방>에 올리면 보너스 점수가 있습니다.

☆ cool 2. 연극구경을 감시다. 요즘 공연되고 있는 정보를 알려면 아래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 [한국 교사 연극협회 - 연극사찰](#)
- ☞ [희재마을](#)
- ☞ 연극구경을 하고 간략하게 소개와 평을 <과제제출방>에 올리면 보너스 점수가 있습니다.

☆ cool 3. 학생들의 연극동아리에 놀러갑니다. 친선도모를 위해서.....

- ☞ [계성고등학교 연극반](#)
- ☞ [이천고등학교 연극동아리 '짓'](#)

<그림 5> 학생개별학습을 위한 웹 페이지의 예

## 6. 결론

이 글에서는 희곡 지도에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안과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했다. ‘인터넷 활용 교육’(WBI)의 입장에서 희곡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한 바가 없으므로, 인터넷 활용에 대한 기반 검토에서부터 출발하여 구체적인 학습 사례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중등학교에서 소설교육과 차별되는 희곡의 교수-학습 방법은 세 가지 정도로 이루어졌다. 첫째가 입체낭독 혹은 라디오 드라마로 만들기, 둘째

가 해당 작품을 실제 공연해보기, 셋째가 학생들이 작품을 창작하여 공연해보기이다. 희곡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각각의 방법들이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어서 어느 한 방법을 선택하기에 주저되는 것도 사실이다. 학습자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으면서도 수업시수의 제한을 덜 받을 수 있는 희곡 교수-학습 방법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만 한다. 그 가능성의 하나로 희곡교육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인터넷 활용 교육의 근본이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을 중요시하는 구성주의 학습관과 상통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를 유발시키고, 개인의 인지적 작용과 개인이 속한 사회에의 참여라는 두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해 지식이 끊임없이 수정되고 보완된다는 점에서 구성주의 학습관은 웹기반 교육과 긴밀한 연계성을 지니고 있다.

희곡교육에서 인터넷을 활용할 때 예상되는 효과를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터넷상의 풍부한 자료들을 활용함으로써 희곡교육이 작품의 내용 중심 수업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 둘째, 인터넷을 활용할 때 얻어지는 적극성으로 희곡교육에 있어서 학습자의 참여를 높일 수 있다. 셋째, 인터넷 웹 사이트를 활용하여 학습자정보를 처리함으로써 희곡교육에서도 개별화 수업이 가능해진다. 넷째, 개별학습을 유도함으로써 희곡교육에 허용된 단위 시수에서 다루지 못하는 내용들을 소화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연극활동을 수용함으로써 방과후의 연극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인터넷 활용 교육’을 위한 기반 여건이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 중고등학교 학생 352명의 설문을 분석해본 결과 대체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응답자의 약 80% 정도가 자기 컴퓨터를 가지고 있었으며, 인터넷에 접속하여 자료를 찾는

대 큰 애로를 겪지 않고 있었다. 더욱이 인터넷과 교육의 관계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을 교육매체로 활용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어 보였다. 현재 가상공간(Cyber Space)에 존재하는 희곡과 연극관련 웹 사이트를 검색하여 분석해 본 결과 역시 희망적이었다. 정보의 내용도 충실하고, 풍부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웹 사이트들이 상당히 많았다. 웹 사이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일종의 포털 사이트(portal site)를 만들어 둔다면 아주 유용할 것이다.

‘인터넷 활용 수업’을 위해서는 담당 교사의 웹 사이트는 필수적이다. 제작을 외부에 의뢰하기보다는 웹 사이트 저작도구를 이용하여 직접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본 골격 외에는 CGI 스크립트(scripts)으로 된 게시판을 활용함으로써 웹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하는 힘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아래와 같이 게시판을 이용한 웹 사이트 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

용도	주요내용
수업 안내판	교과담당교사의 알림글
가상의 교실	수업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학습자의 질문 받는 곳
참고 자료실	유관 웹 사이트 연결, 동영상 등의 참고 자료 연결
검색엔진 모음	심마니, 야후, 한미르 등 각종 검색엔진 모음
과제 제출방	과제를 올릴 수 있는 곳
토론실	토의 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올림
쉼터	학습자들 사이의 가벼운 이야기들

중학교 3학년 『국어』책에 실려 있는 이강백의 <들판에서>를 ‘인터넷 활용 교육’ 방법으로 학습할 때에 대해 수업설계(Instruction design)를 해보았다. 현실적인 교육환경을 무시한 교수-학습 방법은 전혀 의미가 없으므로, 현재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교안에 의거하여 ‘인터넷 활용 교육’을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전체 4차시로 되어 있는 수업 진도에 맞추어 링크·노드로 구조화된 하이퍼텍스트의 내용

을 정리해보면 아래 도표와 같다.

시 수	학 습 목 표	'인터넷 활용 교육'(WB)의 예
1차시	1. 희곡의 특성에 대해 말할 수 있다. 2. 인물과 상황에 따라 말할 수 있다.	1. 작가에 대한 웹 사이트 활용 2. 희곡의 특징에 대한 웹 사이트 활용 3. 연극의 특성에 대한 웹 사이트 활용 4. 무대조건에 대한 퀴즈 활용
2차시	1. 등장인물의 성격을 말할 수 있다. 2. 구성 단계별 사건과 갈등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1. 유명 연예인에서 등장인물 선택하기 퀴즈 과제 2. 친구사이에서 생겨난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과제 제출방>에 올리기
3차시	1. 작품의 주제를 말할 수 있다. 2. 사건 전개에 따른 인물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다.	1. 이솝 우화를 읽고 상징과 의미에 대하여 <과제 제출방>에 올리기 2. 주제와 관련하여 한국 현대사에 대한 웹 사이트 활용
4차시	1. 주어진 배역에 따라 연극으로 실현할 수 있다.	1. 연극공연체험을 위해 동영상을 비롯한 자료 활용 2. 희극창작체험을 위해 <토론실>을 활용하여 토론
개별학습	1. 이강백의 특징에 대해 이해를 한다. 2. 연극을 관람한다. 3. 동연배 학습자들의 연극에 대한 생각을 알아본다.	1. <과수꾼>을 수업자료실에 게재 2. 공연현황을 알려주는 웹 사이트를 <수업자료실>에 연결 3. 중고등학교 연극반 웹 사이트를 <수업자료실>에 연결

이번 연구를 계기로 하여 '인터넷 활용 수업'이 활성화되고, 그 가능성에 대한 검증 작업이 잇따라야 할 것이다. '인터넷 활용 수업'이 준비과정에서 많은 자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선뜻 다가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자료들이 축적되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희곡과 연극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되어 효율적인 수업이 가능하게 된다. 더 나아가 희곡과 연극 학습을 위한 포털 사이트(portal site)를 만들고

독립 씨버를 구축하여 적절한 자료들을 전국에서 집결시켜 활용하도록 한다면 교사들이 힘들이지 않고도 희곡지도에 있어서 획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강인애·이인희·황승연, 「지식기반사회에서 정보기술에 의한 학습환경의 변화」, 『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경희대학교교육문제연구소, 1999.
- 권희정, 「연극을 이용한 말하기 수업; ‘소설’의 시점을 ‘설득하는 말하기’의 관점과 연결 지어」, 『함께 여는 국어교육』 30호, 전국 국어교사모임, 1996 겨울.
- 김수업, 『국어교육의 원리』, 청하, 1989.
- 김용심, 『선생님 우리 연극해요』, 보리, 1994.
- 김의숙,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영어교육 : 인터넷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 외국어교육전공, 1998.
- 김장호, 『학교연극』, 동국대학교출판부, 1991.
- 김재석, 「일제강점기 촌극의 한 양상; 채만식을 대상으로」, 『국어국문학』 103, 국어국문학회, 1990.5.
- 김재석, 「희곡교육에서 촌극활용에 대한 실증적 연구」, 『안동어문학』 제1호, 1997.
- 김재석, 「중학교 소재 희곡의 현황과 읽기의 한 방법」, 『문학과언어』 제21집, 문학과언어연구회, 1998.
- 김혜진, 「인터넷 활용 교육에서의 학습자 평가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8.
- 김희영, 「중등학교에서의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 교육 모델」,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8.
- 문학교육연구회, 「유치한 희곡에서 ‘생활극’으로」, 『삶을 위한 문학교육』, 연구사, 1987.
- 박영정, 「연극교육과 교육연극」, 『문학과 논리』 제5호, 태학사, 1995.
- 박은희, 「교육연극의 이론과 응용」, 『한국연극』 93·3.
- 백영균, 『웹기반 학습의 설계』, 양서원, 1999.

- 백영균, 『인터넷과 교육』, 양서원, 1997.
- 백영균, 『학습용 소프트웨어의 설계』, 교육과학사, 1995
- 소प्뜸놀이, 『연극으로 만드는 신나는 교실』, 내일을 여는 책, 1994.
- 송기상, 「인터넷의 웹을 이용하는 교육에서의 교사의 역할」, 『한국교원대학교수는 총』 제12호, 1996.
- 신현재 · 이재승, 『학습자 중심의 국어교육』, 서광학술자료사, 1994.
- 양영선, 「인터넷 이용한 교수학습 개선안 학습자 중심의 학습환경 일방적교육에서 쌍방적교육으로」, 『새교육』 제500호, 1996.6.
- 이규금, 「대학 교육에서의 인터넷의 웹 사이트 활용」, 『경영교육연구』, 1997.11.
- 이성영, 『국어교육의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 이용주, 『國語教育의 反省과 改革』,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 이은영, 「인터넷을 활용한 쓰기 교육 시스템」,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997.
- 이재승, 『국어교육의 원리와 방법』, 박이정, 1997.
- 이채연, 「하이퍼미디어를 이용한 국어과 수업전략, 구비문학교육을 중심으로」, 『어문학』 60집, 어문학회, 1996.
- 임규홍, 『국어교육의 이론과 실제』, 한신문화사, 1996.
- 정보암, 「희곡지도에 대하여」, 『배달말가르침』 11집, 경상대 국어교육과, 1987.
- 정숙경 외, 『교사를 위한 효과적 수업설계』(번역 유인물)
- 정현주, 「역할극을 이용한 문학수업」, 민족극연구회, 『민족과 예술운동』 6, 1993 여름.
- 조병진,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연극의 역할과 가능성」, 『연극과 교육』 6, 한국국제 아동청소년연극협회, 1991.
- 조숙현, 「인터넷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교사의 관심도 및 활용 실태 분석」,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1997.
- 최윤정, 「연극놀이의 교육적 효용성 연구」, 경성대 석사학위논문, 1995.
- 최종률, 「인터넷에 대한 접근과 교육시설계획의 활용」, 『교육공학』 제6호, 1996.
- 최창렬, 『국어수업연구』, 일지사, 1994(3판2쇄)
- 최현섭 외, 『국어교육학 개론』, 三知院, 1996.
- 학교극 · 청소년극연구회, 『학교극 · 청소년극』, 성문각, 1991.
- 허재영 · 김슬옹, 『국어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광학술자료사, 1993.

[부록1] 설문지

**<인터넷을 이용한 희곡 교육>의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지**

이 설문지의 결과는 원래 목적외의 다른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설문 응답자의 개인 신상이나, 학교명은 밝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설문지의 질문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을 선택하여 번호 위에 ○ 표시를 하거나, 의견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의 집에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습니까?
  - 1) 없다.      2) 혼자 쓰는 컴퓨터가 있다.
  - 3) 가족과 함께 쓰는 컴퓨터가 있다.
  
2. 여러분이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기종은 무엇입니까?
  - 1) 없다.      2) 386      3) 486      4) 펜티엄급 이상
  
3. 여러분이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때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 1) 사용한 적이 없다.      2) 통신업체(천리안, 하이텔 등)를 통해 접속
  - 3) 고속인터넷전용망(두루넷, 하나로 등)을 통해 접속
  
4.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은 평균 어느 정도입니까?
  - 1) 사용하지 않는다.      2) 하루 1시간 미만      3) 1~2시간
  - 4) 2~3시간      5) 3시간 이상
  
5. 인터넷을 이용하여 학교 숙제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 1) 없다.      2) 1-2회 정도      3) 3-5회 정도      4) 6회 이상

6. 여러분이 자주 출입하는 홈페이지(웹 사이트)를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7. '야후', '심마니'같은 검색 엔진 기능을 사용해서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까?
- 1) 없다. 2) 서툴지만 가능하다.  
3) 자주 사용해서 전혀 불편이 없다.
8. 인터넷상에서 동영상 자료를 보거나, 내려받기(down load)하여 본 경험이 있습니까?
- 1) 없다. 2) 있다.
9. 학교 교육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데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1) 인터넷은 오락용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 같다.  
2) 숙제를 하기 위해 자료를 찾는 정도로는 활용될 것 같다.  
3) 학교 수업에 대해 예습과 복습이 가능한 보조 수단으로 이용될 것 같다.  
4) 앞으로 화상수업처럼, 인터넷과 학교교육이 밀접하게 발전할 것 같다.
10. 여러분의 학교에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 실습실이 있습니까?
- 1) 없다. 2) 있다.
11. 학교 컴퓨터 실습실에 있는 컴퓨터 중 제일 많은 기종은 무엇입니까?
- 1) 없다. 2) 386 3) 486 4) 펜티엄급 이상

12. 학교 실습실에 있는 컴퓨터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 1) 개인은 전혀 사용할 수 없다.
  - 2) 담당 선생님의 허락을 얻어서 사용 가능하다.
  - 3)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13. 교실에 있는 학습 기자재를 선택해주세요.
  - 1) TV      2) VTR      3) OHP      4) 실물환등기      5) 비디오카메라
  - 6) 컴퓨터
  
14. 여러분이 경험한 희곡 수업 방식은 어떠했습니까?
  - 1) 소설이나 시 교육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 2) 입체 낭독 방식을 사용했다.
  - 3) 희곡의 한 부분, 혹은 전체를 모두 별로 공연해보았다.
  - 4) 영상자료(video tape)를 통해 관람했다.
  
15. 선생님의 지도하에 연극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 1) 특활 시간에 연극반 지도 교사의 지도를 받았다.
  - 2) 학급 활동의 일환으로 담임 선생님의 지도를 받았다.
  - 3) 수업시간에 교과 내용을 담당 선생님의 지도로 해보았다.
  - 4) 전혀 없다.
  
16. 현재까지 공연장에 가서 연극을 본적이 있습니까?
  - 1) 전혀 없다.      2) 1- 2편      3) 3-5편      4) 6편 이상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2] 학생 창작 촌극대본의 예

\*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대본의 예로써 일부만 제시한다. 이러한 자료들은 연극관련 웹 사이트에서 많이 구할 수가 있으며 교사들끼리 교환하여 활용하여도 좋겠다.

<공주들의 저녁식사>

○○ 중학교

등장인물 : 신데렐라, 백설공주, 잠자는 숲 속의 공주, 인어공주, 황진이, 낙랑공주, 평강공주, 약장수, 해설

거시기 지금은 2000년 6월 평화로운 어느 날 온 세계의 공주들에게 아주 특별한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잉. 거시기 그러니까 한국에서 열리는 대대적인 공주클럽의 파티에 참석해 달라는 편지였죠잉. 아 벌써 편지가 도착했는갑네유 거시기 그럼 공주들의 반응을 살펴볼까요 (어설폰 전라도 사투리로)

평강 : 어 ..... 뭐야 나 온달씨 가르치기두 힘든데 무슨 파티는 파티야. 하여튼 이쁜 것도 죄라니까 죄. 어찌다가 내가 공주클럽에 들었는지 귀찮어 증말..... 근데 며칠이지?

백설 : (박영규 버전으루) 아 진짜 계상 오빠랑 사과 먹을 시간두 없는데. 아 진짜 개뿔이 무슨 파티는 파티야. 아 진짜 또 갈려면 마사지 좀 해야겠네 아 진짜...

잠숲 : (하품하며) 아 ~ 잘 잤다. (옆에 있는 초청장 보며) 어머 이게 뭐야 (최대한 어리하게) 어 파티 가야하네 (좋아서) 히~ 한숨만 더 자구 가야줘.....(다시 자버리는)

낙랑 : 아 용상동 북은 찢었고 법흥동 북도 뒀고 (초청장 발견하고 잠시 보다가) 파티? 빨리 찢어 놓구 가야겠군

신데 : (초청장 보다가) 아…… 어야지? 인제 호박도 하도 마이 써머가 꼬 다 떨어지고 생쥐도 일 시켜먹는다꼬 다 도망갔지 싶은데…… 어예가지????

황진 : 어머 이게 뭐야 (초청장보고) 파티라구? 아유 요즘 얼마나 바쁜 시즌인데 거기다 요즘 지원 도령두 이제 완벽하게 넘어오구 있는 중인데 이거 가야하나 말아야하나. 아(생각난 듯) 지원 도련님께 물어보면 되겠구나 양…… (거울보며) 얼굴두 이쁘게 머리까지 좋다니까

인어 : (아주 기뻐하며 편지 걸봉만 보고) 어머어머 어머 웬일이래니…… 편지가 왔어 어머 이게 몇 년만이야 (뜯어보고) 어머어머 파티래 파티…… 신난다! 언더더씨……

아~ 거시기 모두들 거시기하게 좋아하는 것 같쥬잉? 뭐여 아니라고 잉? (잠시 머뭇) 거시기 아뿔튼 오늘이 파티날인디 공주들이 다 와있나 모르졌니요 잉. 아 거시기 저기 벌써 모여있네요 잉. 한번 우리도 가볼까요 잉?

잠숲 : 어 나 너무 많이 잤나봐 머리 아파 야 나 눈두 부었지?

평강 : 으이구 그러길래 맨날 잠만 퍼자래? 어야 너 머리두 뺏었다

잠숲 : (어리하게 웃으며) 히~ 진짜

백설 : 아 진짜 너 그렇게 바보같이 웃지마 아 진짜

낙랑 : 백설아 그렇게 남을 무시하는 행동은 공주으로써 해선 안되는 행동이야 알겠니? 다시는 그러지마

백설 : 그나저나 아 진짜 나머지 애들은 왜 앓오는거야 아 진짜 연락 못받은 거 아닐까?

황진 : 어머 애들아 미안하다 나 빨리 오려구 했는데…… 너네 알지? 내가 요즘 장사하느라 너무 바쁘다 애

평강 : 장사는 무슨 장사니 성격에 뺏하지 뭐 또 남자 꼬시다왔지? 야

도대체 너는 남자가 몇이나 몇 나처럼 한남자만을 바라보며 살수는 없  
냐?

(이하 생략)

■ Abstract

## The Study on Making Use of Internet in the Play

—Education of Secondary School Korean class—

Kim, Jae-suk, Yong, Pil-leh

In this paper, I tried to present how to make use of internet in play-teaching and how to practice this method practically.

Up to now, there has not been study on teaching method in terms of WBI, So I began to examine the bases for internet-use and presented concrete cases of learning.

The effects expected when teachers make use of internet in play-clas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by means of using plentiful materials in internet, play-class can find the way the class centered on the contents of works.

Second, the students' positive attitude acquired in the use of internet make themselves take part in the play-class spontaneously.

Third, the individual-class in play-education is possible, dealing with students' information by putting use of web-sites in internet.

Forth, by means of inducing students to study individually, they learn for themselves the contents which are not treated within the time allotted to play-education in school.

Fifth, students can affect the play-activity after school by receiving various play activities presented in internet.

To take these effects, the basic conditions for WBI should be formed. As to these basic conditions, I could get positive conclusion, a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question aires of

352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mong them the 80% students have their own computers and don't have much trouble in finding the data in internet. Moreover they have affirmative thoughts the relation between education and internet, so it doesn't seem to be difficult to make use of internet as an education method.

Also I got the hopeful results by searching and examining the web-sites related with play and drama in cyber space. There are considerable web-sites whose information are reliable and which have plentiful data. In this case, it could be very useful to arrange these web-sites systematically and to make a kind of portal site.

For WBI, the teachers' web-sites are indispensable. on this occasion it is more desirable to make web-sites for themselves than to place the matter of other people. When they make their own web sites, they can relieve the burden of making and managing the sites by using of the bulletin composed of CGI scripts except the basic frame.

As a teaching method of WBI, I tried to present some introduction designs of the lesson, Lee ganback's *Dulpaneseo*(At the field) carried in korean book of the middle school-3rd grade. I hope this method presented in this paper will be put in practical use in school and will be amended and improved.

주제어 : 희곡교육, WBI, 인터넷활용교육, 희곡사이트, 연극교육